

한국타이어, 동남아에 7공장 건설

인도네시아에 600만개 증설 ... 4년 후 1억개 생산 글로벌 탑5로

한국타이어가 인도네시아에 제7공장을 건설함으로써 4년 후에는 세계 5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.

한국타이어(대표 서승화)는 인도네시아에 6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제7공장을 2014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고 12월23일 발표했다.

Jakarta 인근 공단에 60만㎡ 규모로 지어지며 2011년 3/4분기에 착공해 2014년 9월 완공되며 1,단계로 3억 5000만달러가 투입된다.

공장이 들어서는 Jakarta 인근 공단은 전력, 용수, 인력 등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Jakarta항을 통한 수출이 용이해 동남아는 물론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은 “인도네시아 공장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중장기 전략”이라며 “기존 생산 능력 8700만개 외에 중국, 인도네시아에서 신증설을 추진함으로써 4년 후에는 생산량 1억개 달성해 글로벌 톱 5에 진입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국타이어는 현지 공단 측과 부지정보, 투자규모 등 세부사항을 조율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투자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0/12/23>